

금요 양성 2026년 5월 22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 세례부터 서약까지 (3부중 둘째)

[개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을 따로 다루고, 영속 양성을 위해서는 3부 전체를 같이 제시하여 토론할 때 유용할 것이다]

FUN 지침서에 있는 Anne Mulqueen의 재속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회칙에 서약할 때, 우리는 세례때에 한 약속을 온전히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세례의 약속을 강화한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된다.

- 우리의 정체성은 재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다.
- 우리는 “재속 신분으로 완전한 사랑”을 위해 노력한다.(회칙 2조)
- 세상이 우리의 집이며 우리가 봉사하는 곳이다. (회칙 16조)

재속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각자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수도자들에게 열려있지 않는 공적 삶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교구 성직자들은 “재속이지 수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회원들이 될 수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원들은 모든 상황과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복음이 살아 질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평화와 정의, 기쁨과 수용, 이해와 용서, 화해와 관계가 프란치스칸 소명의 결과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추구한다.(회칙 14조)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의 봉사:

회칙에 대한 충실함과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을 통해 성취된다. (재속회 회칙 11항)

- 우리의 창시자-성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는다.
-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프란치스칸 정신을 가져온다.
- 이것이 교회에 주는 우리의 선물이다.
- 초기양성과 영속 양성은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에 대해 알게해 주며 충실하도록 도와 준다.
- 우리는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한다.

우리 회칙과 회헌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그것들은 세례를 통하여 하기로 불림받은 대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회칙 4,5,8, 과 13을 읽으시오.

(다음주에 계속됨)

토론과 저널에 답 쓰기를 위한 질문들

- +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현존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 줍니까? 어떤 상황에서?
- + 재속 신분으로서 어떤 때에 특히 복음을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 + 회칙 4,5,8, 과 13에서 두드러지는 3가지 점을 말해 보시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에게 왜 그 점들이 중요합니까?